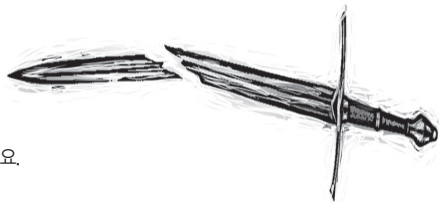


패배한 원수 사탄

TMI 실천해 보세요

23.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27.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28. 이웃이 집을 비울 때에 집을 봐주세요.



- **연구 범위** 계 12장, 창 3:15, 사 14:12~15, 단 7:23~25, 살후 2:8~12, 계 13:13~14, 계 19:20
- **기억 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계시록 12~14장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는 계시록의 후반부(15~22장)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책의 전반부(계 1:1~11:19)가 기독교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투쟁을 벌였던 교회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후반부는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를 때까지 일어날 주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계시록 12장의 목적은 세계 역사에 불어닥칠 마지막 위기의 배후에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준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흉이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주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과 반역의 배후이다. 그는 아마겟돈에서의 승리가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것은 또한 사탄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항하여 총력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TMI Time



※ 학습 목표

- ☑ 깨닫기 :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와 그 사이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역사를 이해한다.
- ☑ 느끼기 : 이미 패배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한다.
- ☑ 행하기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의 전략에 대항한다.

TMI 안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함

1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을 환영해 줍니다.

2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고 안교헌금을 걷습니다.

3 결석자와 구도자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08

TMI 위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

- ① 그대는 친한 사람 때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② 사탄은 하늘과 지상에서 벌인 그리스도와와의 대결에서 각각 어떻게 패배했습니까?
- ③ 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④ 예언에 따르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진화합니까?
- ⑤ 사탄의 전략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⑥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세력이 펼쳐는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결은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려면 사탄의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며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TMI 밖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함

- ① '내가 실천한 TMI 활동 : ()'을 적고 함께 나눕니다.
- ② 각자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나눕니다.
- ③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실천할 TMI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TMI(Total Member Involvement)는 전 교인이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운동입니다.

계 12:1~5을 읽어보라. 환상 속에서 요한은 두 가지 이적을 본다. 첫째는 아이를 임신한 한 여인이고 둘째는 용이다. 이 표적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성경절들이 알려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고후 11:2). 순결한 여인은 신실한 신자들을 대표하며, 음녀는 배도한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우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계 12:1~5), 13~17절에서는 남은 자들을 배출하는 진실한 교회를 상징한다.

이 여인은 태양을 입었으며 달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태양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의에서 표출되는 영광을 상징한다(말 4:2). 그분은 “세상의 빛”(요 8:12)이시며, 그분의 백성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마 5:14~16). “작은 광명체”(창 1:16)인 달은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사역의 전조를 나타내는 구약의 약속들을 가리킨다.

그다음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계 12:3)인 크고 붉은 용이다. 그것의 꼬리는 세상을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을 상징하는데(사 9:14~15, 계 9:10) 용이 그것으로 하늘의 별 중 삼분의 일을 땅에 던졌다(계 12:4). 이것은 사탄이 하늘의 최고 지위에서 떨어졌지만(사 14:12~15) 천사의 삼분의 일을 기만하는 데는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를 도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령들이다(참고 딤편 4:1). 계시록은 또한 용을 사탄의 대리자인 이교 로마와 강신술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계 12:4, 16:13). 그래서 이교 로마 역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것으로 묘사된다(계 13:1).

계 12:9을 읽어보라. 사탄은 옛 뱀이라고 불린다. 창 3:15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는 사탄의 노력(계 12:4)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교훈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결은 그들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사이의 대결로 전개된다.



목상 그대는 사탄의 활동과 공격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어서) 처음부터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아이로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나자 그는 이교 로마(계 12:4에 용으로 상징됨)를 사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다(참고 마 2:13~16).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계 12:5)라했다.

적용 그대가 현재 담대한 마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



사탄을 상징하는 용 - “용은 사탄이라고 불린다(계 12:9 참조).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438).

기도



아버지, 제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은 저를 시험과 유혹의 파도에 빠트리려고 하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그 위를 걷기 원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떨어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7~9).

하늘의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계 12:7~9을 읽어보라.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지 사탄이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는가?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했던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는 하나님의 하늘 왕좌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했다(사 14:12~15). 그는 하나님께 노골적인 반역을 일으켰으나 패배하여 지구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세상에 대한 아담의 지배권을 빼앗았다(눅 4:6). 이 세상의 통치자를 자임함으로써(요 12:31) 사탄은 지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하늘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주장했다(요 1:6~12). 그러나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후로 그와 그의 사자들은 형벌을 받을 때까지 지구에 유폐(幽閉)된 상태이다(벧후 2:4, 유 6).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잃은 것을 속량하셨고, 오히려 사탄의 본성이 우주 앞에 드러났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조를 얻을 가능성에서 자신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시대의 소망, 761). 온 우주 앞에서 지구의 통치권은 사탄에게서 예수님께로 이양되었고 그분이 지구의 적법한 통치자임이 선포되었다(엡 1:20~22, 빌 2:9~11).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음의 말씀으로 예언하셨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

교훈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지구 통치권을 찬탈했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패함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목상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시기에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사탄에 대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계 12:10)다. 사탄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지상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계 12:12). 비록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그는 고난과 고통과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적용 그대는 매일의 쟁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을 그대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까?

영감의 교훈



사탄은 자칭 이 세상의 임금 -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 곳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시대의 소망, 114).

기도



아버지, 우리는 자신을 버릴 만큼 담대하지 못하며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계 12:13).

계 12:13~14을 읽어보라. 하늘로부터 배제된 사탄은 1,260일이라는 예언적인 기간 동안 계속 교회를 공격한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에 개입하셨는가?

“사탄이 형제를 참소하는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크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탄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경륜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사탄은 그가 찬탈한 제국을 결국 도로 빼앗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미워하였다. 그는 이제 인간이 잃어버림을 당할 만한 모든 속임수를 인간에게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가 그의 노선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는 까닭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때문이다”(화잇주석, 계 12:10).

물론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인 교회를 향해 그의 맹렬한 분노를 쏟음으로써 땅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1,260년 동안 외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계시록 12장에서는 1,260년과 관련하여 사탄의 박해 기간이 두 번 언급된다(6절,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두 표현 모두 단 7:23~25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박해 활동을 펼치는 기간을 가리킨다. 예언에서의 하루는 일 년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의 기간은 기원후 538~1798년에 들어맞는다. 그 기간 동안 로마카톨릭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권력으로서 서방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1798년에 이르러 나폴레옹(Napoleon)의 장군 베르시에(Berthier)가 한시적으로나마 로마의 압제적인 권력에 종말을 가져왔다.

교훈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목상 그대는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어서) 박해의 기간 동안 용은 여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 물을 강처럼 토해낸다. 물은 백성과 민족들을 상징한다(계 17:15). 이 기간에 로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 군대와 나라를 동원하지만, 친절한 땅이 강물을 삼켜서 여인을 구원하고 그녀를 위해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비는 아메리카가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제공했던 피난처를 가리킨다(계 12:16).

적용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그대에게 필요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



사탄의 박해 전략 -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본으로 견책을 받을 때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부조와 선지자, 607).

기도



아버지, 사탄이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무리에 대항하는 전쟁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계 12:17).

계 12:17을 읽어보라. 마지막 때에 사탄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펼치는가?

‘남은’ 또는 ‘남겨진’이라는 말은 대다수가 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히 남아있는 자들을 묘사한다(왕상 19:18, 계 2:24). 마지막 때에 대다수의 세상 백성은 사탄의 편에 서지만, 1798년 이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백성의 무리는 사탄의 맹렬한 분노에 직면해서도 그리스도의 편에 신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계 12:17에서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에 속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시록 13장은 십계명의 첫째 석판이 마지막 대결의 쟁점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처음 네 개의 계명의 핵심 요소는 경배이다. 마지막 위기의 때에 중요한 사안은 ‘누가 경배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세상의 백성들이 짐승의 우상에 절하기로 선택할 것이지만, 남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계 14:7). 넷째 계명 곧 안식일 계명은 특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지목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안식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마지막 남은 무리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 19:10은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씀을 계 22:9과 비교해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의 형제들이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계 1:2)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교훈

사탄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묵상 예언의 신은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어서) 계시록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종말의 때에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예언의 영”이 계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림신자로서 우리는 엘렌 G. 화잇의 사역과 저술에서 흘러나오는 예언적인 통찰을 선물로 받았다.

적용 그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08

영감의 교훈



사탄의 공격 대상 -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일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남은 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교회증언 2권, 105).

기도



아버지, 세상이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지라도 저는 참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남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에 순종하여 진리 위에 서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마지막 전략

계 12:17은 사탄이 세상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추종자들까지 미혹하려는 전략의 수정을 암시한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주로 교회 내부에는 교묘한 타협을 들여놓고, 외부에서는 억압과 박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해 왔다. 역사에 따르면 이 전략은 여러 세기 동안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종교 개혁과 성경 진리의 재발견을 통해서 좌절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나아간다(계 12:17). 남은 백성에 대한 공격 방법에는 다양한 미혹이 포함될 것이다. 이적을 행하는 악령들과 강신술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계 16:14). 이러한 사탄의 전략 수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이동을 의미한다(참고 마 24:24).

계시록 12~20장에서 사탄의 마지막 활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사탄의 마지막 활동 묘사의 시작과 결론을 장식한다(계 12:9, 20:7~10).

살후 2:8~12을 계 13:13~14, 19:20과 함께 읽어보라. 사탄의 마지막 기만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시록 12~20장은 세상을 미혹하려고 노력하는 사탄을 묘사한다(참고 계 12:9, 13:14, 18:23, 19:20, 20:8). 그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사용한다. 용으로 표상된 이교 로마(계 12:4~5), 그다음은 바다의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계 12:6, 15, 계 13:1~8), 마지막으로는 땅의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계 13:11). 이후 계시록의 남은 부분에서 사탄의 이 삼각 동맹(용으로 묘사된 이교주의와 강신술, 바다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가톨릭, 양을 닮은 땅의 짐승으로 묘사된 배도한 개신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에 단단히 결속한다.

교훈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연합 세력을 동원하여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마저 미혹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목상 **그대는 지금 사탄의 미혹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미혹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이어서) 그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서게 하려고 함께 일한다(계 16:13~14). 이런 거짓 종교 체제는 재림의 날에 파괴될 것이고(계 19:20), 이러한 지상의 세력들을 통해 일했던 용 곧 마귀는(계 12:9) 천년기가 끝날 때에 멸망할 것이다(계 20:10).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미혹이 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참고 마 7:13).

적용 **우리가 사탄의 기만술과 미혹을 분별하려면 어디로부터 지혜와 충고를 받아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



격렬해지는 사탄의 분노 - “사도 요한은...‘땅과 바다 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계 12:12)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탄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난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3).

기도



아버지, 말씀의 교훈과 원 칩들이 제 삶의 기둥과 줄 기가 되어서 사탄의 교묘 하고 은밀한 작전도 분별하 고 간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 시대의 대쟁투〉, 518~530 ‘사탄의 함정’을 읽어 보라.

계시록 12장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일부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고 미래에 훨씬 심각한 방법으로 대면하게 될, 교활하고 분노에 가득 찬 원수에 관하여 경고한다. 바울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살후 2:9~10)고 경고한다.

계시록은 우리가 미래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촉구한다. 한편 계시록은 사탄이 비록 강하고 교활한 원수이지만, 그리스도를 이길 만큼 강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단언한다(참고 계 12:8).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은 오직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이미 철저히 무찌르셨던 분에게 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마 28:20).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성들을 갖췄다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엄숙한 책임입니까?(참고 눅 12:48)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우리는 함께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다. 그가 능력이 많은 존재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으신 권능의 구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말하자”(엘렌 G. 화이트, *The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1889년 3월 19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까? 한편 사탄의 실제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태도에는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웃 언니를 통해 만난 주님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무신론자로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남편이 골수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저 혼자 시부모님의 장례식까지 치러야 했고 이후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걱정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단돈 천 원이 없어서 학용품 값도 못 주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제 월급은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에 부족했고, 쌀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며, 홀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이웃 언니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가까이서 저를 응원하는 든든한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일부러 일을 맡기고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드러나지 않게 챙겨 주었습니다.

이런 일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오히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언니는 토요일에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을 포기한 채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저도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재림교회에 꼭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힘들었던 저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후 침례를 받고 이제는 언니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며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확실합니다. 언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언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언니의 삶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지금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의 남편과 아들도 침례를 받고 재림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를 통해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중합교회 마천교회 집사 **홍순미**